

제37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2. 5. 25(금), 15: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강명구 의장, 윤성승 의원, 이순일 의원, 이재호 의원, 이강준 의원, 임정민 의원, 조중열 의원 - 총 13명 중 7명 참석

불참 : 강희진 의원, 김진우 의원, 박윤규 의원, 윤갑희 의원, 이홍평 의원, 이효철 의원

의장 강명구 : 13분 의원 중 7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3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법정부담금 관련, 국제학사 건립 관련입니다. 두 번째 안건 국제학사 건립 관련을 먼저 올려서 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법정부담금 관련 보고사항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학사 건립관련해서 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뒤에 붙임 보시면 건축위원회 및 국제학사 관련 사항 공문이 붙어있습니다. 관련해서 5월 17일에 건축위원회가 열리기로 되어있었는데 저희 대학평의원회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5월 31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5월 31일까지 어떤 형태로 건축위원회에 참여할 것인가. 전반적인 건축위원회 구성 관련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드리면 교수회에서는 두 번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1쪽에 나와 있는 건축위원회 위원구성 10명 중 당연직이 5명입니다. 당연직 숫자를 줄이고 교수회나 대학평의원회에 추천한 위원을 2~3명 넣는 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그 전에 총장님하고 기획처장님 저 셋이서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기획처장님하고 총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싸게 튼튼한 건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수용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시공사 선정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한 의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가 본부와 대학평의원회가 협조를 해서 가장 좋고 싼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논의하

< 간서명란 >

의장  - 1 -

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 건은 기획처 소관사항이지만 처장님께서 발표해주십시오.

총무처장 이준섭 : 기획처 소관인데 기획처장이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 참가 때문에 대신 설명 드리러 왔습니다. 지난번 평의회 때 평의원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국제학사를 건설하는데 요청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투명하게 보여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평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바에 의하면 건축위원회와 관련해서 평의회가 3인을 추천하고, 학교가 3인을 추천하여 6명으로 건축위원회 관련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기획처에서 별도의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평의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 신축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5단계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1단계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기획처에서 할 것이고 그것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서 확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설계시공 감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위원회에 심의 확정된 후에 총장결재가 이루어지고 법인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설계입찰하고, 3단계가 감리입찰하고, 4단계는 시공입찰하고, 그 다음 5단계는 공사에 착수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획처 소관의 기본 계획 작성에 관한 총장결재 법인보고가 이루어진 기본계획이 작성이 되고 나서 설계를 입찰하게 되는데 설계현상공모를 공고하는 것은 구매팀에서 하고 각 설계회사들이 제출하는 설계안 접수도 구매팀에서 하고 각 응모자의 접수된 설계안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설계심의위원회는 기획처 소관입니다. 그 설계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설계회사 심의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설계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총무처 구매관재팀에서 계약협상을 하고 협상이 되면 계약을 하며, 결렬시 차순위 설계사와 협상 후 계약하는 절차를... 확정된 설계회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 총무처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설계 관련 아까 얘기한 설계 감리 시공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자격 기준을 정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른 문제라서 감리사를 선정하

< 간서명 관 >

의장

는 것은 사실상 입찰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구매팀에서 감리사 선정 공고를 하면 공고에 응해서 감리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회사를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 전자입찰입니다. 최저가를 입찰한 감리사를 선정이 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감리사를 선정하는 것은 선정이 되면 감리 용역계약을 구매팀에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공사 선정 하는 건데 지난번 평의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공사 선정 공고를 구매팀에서 내면 응찰하는 회사들이 최저가로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최저가로 들어와서 어떻게 공개할 것 인가는 전자투찰방식이 있고 전자투찰은 인터넷으로 입찰가격을 제시를 하면 그것을 정해진 시간에 공개하는 것이고 그 전 방식에 의한 최저가 입찰방식은 밀봉한 봉투를 공개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저가 입찰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닌 다음에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설계사를 선정 할 때에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평의회에서 참여를 원하신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건축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총무처는 건축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기획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건축위원회의 구성은 이미 기획처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추가적으로 추천하는 인사를 건축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것 인지에 관하여 제가 따로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몇 명까지 인원제한이 있나요?

총무처장 이준섭 :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평의원 이재호 : 규정상...

총무처장 이준섭 : 규정상으로는 건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의장 강명구 : 제도적 근거가 뭐죠?

총무처장 이준섭 : 건축위원회 관련 근거 규정이 있죠.

의장 강명구 : 학교 규정이 있는 건가요? 학칙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팀 이수영 : 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건축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위원회 인가요?

< 간서명 란 >

의장 강명구

기획팀 이수영 : 일반적인 위원회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건축위원회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위원회 별로 몇 명이다 하는...


기획팀 이수영 : 위원회 별로 특별히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럼 당연직도 이상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아주대학교에서 지난 몇 년간 신규 건축을 한 기록을 보면 몇 개 건설사들만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상의 길이었느냐에 대해서 이전들이 있어 애초에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런 지적에 처장께서도 동의를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건축에 참여하는 회사들을 다변화 할 수 있는지 답을 찾는데 같이 의견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현행 규정이 이러니까, 구경을 하던 의견을 내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란 말씀은 전후가 뒤바뀐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건설사를 다변화하여 학교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가 됐든 설계사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됐든 목적에 맞는 방법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찾는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처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충분히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사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에 참여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을 추천을 하면 좋겠다는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특정 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혹시 부정의 소지나 왜곡된 선정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인데 물론 그런 측면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우려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저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 얼마나 건물 건축 설계하는데 설계에서부터 에컨대 국제학사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절감해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또 에너지 차원의 지하의 열, 태양열을 충분히 외부에서 지원받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대개 논의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관해 결정을 하면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뛰어서 정부 등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처장께 건의를 드렸어요.

< 간서명란 >

의장  -4-

건축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도로 각계 전문가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기획처장님께서 간곡하게 전달은 부탁하신 것은 아마 들으셨을 지도 모르겠는데 평의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서 너무 집행을 하는데 참여하시려는 것은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처장님께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왜 머릿속에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처장께서는 저보다 시장경쟁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면 기술적으로도 제일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지, 한 번도 부정이라는 단어를 제 입에 담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경쟁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한다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장 좋은 건물을 지을 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믿기에, 그렇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드리지 않은 말씀을 제가 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제가 오해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시장경쟁이라는 것이 완전한 경쟁을 통해서 시공사 선정하는 것이 곧 좋은 건물을 짓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것이 현재 가격 경쟁인데 우리가 경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격밖에 없거든요. 최저가 입찰인데 최저가 입찰을 해서 좋은 건물을 짓는 회사를 뽑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회건설 같은 경우는 각 대학에 건물을 많이 짓는데 최저가로 들어와서 실제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인상을 하게 되면...

의장 강명구 :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질문하실 때 1분 내에 하시면 답변도 빨리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회의가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평의원 이재호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서 건축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보면 위원 숫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건축위원회에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적절한 숫자가 들어가는 데는 최소한 규정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단계에 걸쳐서 논의과정들이 있고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건축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

< 간서명 관 >



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명의 평의원 추천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우선 제안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죠?

총무처장 이준섭 : 문제될 것이 없죠. 다만 제가 받는 인상은 이런 거예요. 기존의 건축위원회를 믿지 못하는 것 아닌가...

평의원 이재호 :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리뷰를 해 보면 지정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모두한테 오픈을 하고 들어오라고 해도 아주대학교는 그간 대우건설 아니면 대창 아니면 대우자판 이 세 회사가 건설을 도맡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듣는 바로는 이미 외부에 소문이 나고 건설업자들이 이미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대학교 그러면 그거는 이 사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지명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그동안 아주대학교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번 두 번 다른 회사들이 이 안에 경쟁해서 공사에 참여하게 되고 시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인식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는 과거에 시행했던 제도들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강명구 :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나요?

총무처장 이준섭 : 아니죠. 거기서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자격기준 등을 정하게 됩니다.

의장 강명구 : 시공사 선정은 언제 합니까? 나중에 총무처 담당으로 합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첫 단계인 기본계획 및 자격기준을 정하는 과정을 건축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시공사 선정의 대강이 정해지고, 형식적인 가격 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선정됩니다.

평의원 이순일 : 건축위원회에서 시공사 입찰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보완 없이 최저가 입찰로 간다면 지금까지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렇다면 처장님과 저희 의견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값

< 간서명 관 >

의 장  -6-

싸고 좋은 건물 지을까하는 것에 관한 방법만 남았습니다. 위원 명단 보면 당연직이 여러 명 계신데, 학생처장님 같은 경우 오셔서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과연 건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기획팀장님 경우도 그렇고. . . 운영규칙상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에 관한 얘기는 안하겠지만 당연히 집행 감시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게임의 룰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2~3명 정도 당연직을 줄이고 대학 폐위원회 추천인사가 2~3명 정도 들어가서 오해의 소지 없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없으신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총무처장 이준섭 :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기존의 건축위원회가 일종의 학교의 집행을 위한 심의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의회가 아닌 교수회에서 두 명을 추천 한다면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평의회에서 2~3명을 추천한다면 평의회 기능과는 어긋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 뿐만이 아니라...

의장 강명구 : 평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의회의 기능이 대의기구로서 대학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건설적인 자문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안하면 평의회 뭐 있을 필요 있나요?

평의원 이순일 :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비 120억이죠? 이거보다 훨씬 큰 액수의 국가지원사업의 구매사업에 참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서는 위원회가 어떻게 하던 최저가 입찰이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 경험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지만, 아무리 싸값에 들어와도 원래의 목적을 달성 못 할 정도로 기술적인 수준이 안 되면 구매위원회에서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배제가 됩니다. 처장께서도 지금까지 건축위원회가 충분히 검토를 못한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이 확실하게 있다면, 더군다나 건축위원회를 보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각에서 새로운 input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더 싸더라도 저기는 적절하지 않다든지, 조금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든지,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

< 간서명란 >

의장

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재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입찰하는 업체들이 더 늘어나도록 학교 측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입찰공고 기간이 짧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입찰업체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입찰기간을 더 늘린다든가 홍보하는 수단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새로운 의견도 건축위원회에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지난 몇 년 간의 상황을 바꾸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인적 구성을 해서, 좀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할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면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실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강명구 : 지금 말씀은 견제와 감시라고 했지만 어떻게 하면 힘을 합쳐서 같이 싸고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기술적인 견해를 첨가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 점에 대해서는 몇 명이 더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나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나 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원칙적으로 저도 평의원의 기능과 관련해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서는 학교 구성원이 합쳐서 일을 하자는 데 평의원의 기능이 무슨 문제이나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건축위원회 뿐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되면 전례가 되어서 그런 측면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건축위원회에 몇 명을 추천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고려해 넣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기획처장이 저한테 약간의 언질을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3명은 너무 많은 측면이 있어서 사실상 1명 정도의 추가의견이었습니다만 2명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근데 처장님께서 저번에 우리가 같이 이걸 걱정하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의사를 보이신 것이...

총무처장 이준섭 : 그렇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아까 설계심의위원회에 얼마든지 들어와서 참여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분명히 말씀

드린 건축위원회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총무처가 소관 하는 최저가 입찰하는 감리 선정하는데 시공사 선정하는 데는 얼마든지 오셔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의 취지였는데 이게 제가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달리 평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런 데는 참여하셔야 아무 소용없고 건축위원회 가서서 건축위원회에 추천을 해서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장 강명구 : 전례가 될까봐 우려하신다는 겁니까?

평의원 이재호 : 말하자면 인사위원회 이런데 참여하자고 할까봐...

의장 강명구 :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처장님이 걱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 돈을 적게 쓰고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힘을 합치는 전례가 생기면 좋은 전례이죠. 대학 본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효율성에 입각한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해있다면 족합니다. 대학평의위원회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칙대로 누가보든지 공정한 게임을 한다고 하시면 저희가 100명이 들어가도 아무 할 일도 없을 겁니다. 걱정하나도 안하셔도 됩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의장님, 그런 취지라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평의원의 기능에 관하여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평의회가 아닌 교수회나 아니면 학생회에서 2명 정도를 건축위원회에 추천을 한다. 형식은 평의회가 아니더라도 다 달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걱정이라면 그건 평의회가 추천하건 교수회가 추천하건 학생회가 추천하건 마찬가지로 걱정하실 문제 인 것 같은데요?

총무처장 이준섭 : 아니죠. 교수회는 다르죠. 교수회는 얼마든지 학교 일에 관하여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회도 마찬가지이고...

의장 강명구 : 대학평의회는 상위기구입니다. 자문과 심의 기구가 있는데..

총무처장 이준섭 : 평의회는 각 대학 아주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에 설치된 자문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대학교의 기능이 적시된 평의회 기능은 정관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관에 정해진 평의회 기능을 사실상 벗어난 것인데...

< 간서명 관
의 장
- 9 -

의장 강명구 : 어떻게 벗어났죠?

총무처장 이준섭 :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제가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요.

평의원 이순일 : 누가 해석을 했죠?

총무처장 이준섭 : 그런 것을 누가 해석했다고 여쭙보시면...

평의원 이순일 : 처장께서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합니다. 대학평의원회에서 제안한 것을 수용 못 하겠다 하시는 근거를 말씀해주셔야 저희도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걸 따르겠다고 하시면...

총무처장 이준섭 : 예컨대 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자문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거는 우리 평의원들께서...

평의원 이순일 : 지금 논의의 대상은 위원회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처장회의나 교무회의에 들어가는 대표를 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어차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장께서도 건축위원회가 지금까지 기능을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드리는 건데 그 위원회를 확충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시는 이유를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아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합니다. 건물을 지으면 교수들만 영향을 받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 영향을 받는 거니까, 대학평의원회가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기에 제일 적절한 곳인 것 같은데,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 강명구 : 대학평의원회 기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4호 6호는 자문에 한한다. 나머지 심의는 첫 번째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사항 두 번째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사항 세 번째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의원의 추천에 관한사항 그 밖에 교외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 생각에는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이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사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

< 간서명 란 >

의 장  10 =

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주시시오.

평의원 이재호 :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 정해져 있어야만 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을 추천하면 그 추천을 받아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에 규정에 입각한 기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학교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파트너십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한테 항상 건축위원회 위원 몫을 몇 명 지정해라 그것을 규정화 하고 그렇게 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총무처장 이준섭 :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건축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수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평의원 이재호 :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파트너십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추천을 하시면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의문이 듭니다.

평의원 이순일 : 처장께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정을 바꿔서 모든 위원회에 평의원회 추천 위원 몇 명을 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하면서 건축 관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잘 해보자라고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에서 잘해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될 것인데, 너무 경직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의장 강명구 :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협조해서 도와드리고, 싸고 튼튼한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하면 객관성을 뿜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건축위원회가 최근에 구성이 되지 않았나요? 구성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기획팀 이수영 :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난번에도 국제학사 신축 공사 개요가 잘못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고 회의를 하는데 이미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면...

기획팀 이수영 : 이 위원들이 현재 위원이 맞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한번 확인해보세요.

의장 강명구 : 건축위원회는 기획처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처장님이 오서

< 간서명란 >



서...

총무처장 이준섭 :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의장 강명구 : 지난 금요일인가 총장님과 만날 때 기획처장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유의미한 발언들을 나누었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제가 전달받은 사항으로는 한명 정도 추천하면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의미하고 실효적인 객관성을 떨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점입니다. 한 명 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위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보다 오해들이 풀렸다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가, 토론과정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제대로 되어야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처장님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핵심은 힘을 보태어 같이 나가자는 겁니다. 다만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관행들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불편하시겠죠. 그렇지 않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저희에게도 한 번 더 논의를 할 기회를 주시죠.

의장 강명구 : 제가 기획처장님과 얘기를 할 때 5월 17일이 건축위원회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안 됩니다 해서 5월 31일로 늦추셨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건축위원회가 5월 31일로 되어있는데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할 필요가 있어서 건축위원회에서 첫 단계인 기본계획에 관하여 심의하는 것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장 강명구 : 지난번 몇 분 모이셨을 때 나왔던 말이 자꾸 국제학사 먼저 짓고 기숙사 나중에 짓는 대신 같이 지으면 훨씬 더 공사비 적게 들고 불편도 덜 수 있는데 왜 따로 지어 쓸데없이 낭비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지으면 단가도 떨어지고 계산해봤더니 5년 정도만 지나면 기숙사비로 건축비가 마련되거든요. 또한 입주학생들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평의회에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회에 2~3분 정도 들어가셔서 심도 있고 의미 있게 집약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의회를 학생대표 교수회 대표 이런 것도 있지만 건설 실무에 밝은 실무진 한분정도에 교수라든가 평의회 대표 한 두 분 정도 같이 들어가서 말씀 나누면 될

< 간서명란 >

의장  - 12 -

것입니다. 학생회에서는 대표를 못 보내면 참관하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맞습니다. observer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다만 결의에 참여하는 것은 결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평의원 의원님께서 직접 추천이 되시는 것은...

의장 강명구 : 우리는 안 들어 갑니다. 우리는 실무진도 아니고 물론 못 들어간다는 법은 없지만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뛰해보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저희가 건축을 어떻게 압니까?

평의원 조중열 : 건축위원회 당연직 아닌 분들은 임기가 2년인가요?

총무처장 이준섭 :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이 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계시죠. 대표적으로 제해성 교수님.

평의원 조중열 : 건설과 도시에 다른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특별히 오래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제해성 교수님 같은 분은 오랜 기간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건물에 친환경 또는 에너지 절감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학과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기계과 교수님 등 각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최근 임기가 시작된 것 3월, 5월입니까?

기획팀 이수영 : 임기시작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장 강명구 : 임기중이다. 이 말씀 이죠.

총무처장 이준섭 : 임기와 상관없이 개선할 수 있어요.

평의원 조중열 : 총무처장님 말씀대로면 개선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건축위원회에 추천하신 분들을 추가적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당연직 위원 중에 꼭 안 들어 오셔도 상관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기획팀장이라든가, 의료원 건물도 아닌데 의료원 기조실장도

< 간서명란 >

의장  - 13 -

그렇고 학생처장도 실제적으로는...

평의원 임정민 : 같은 의견으로 학생대표는 학생처장이 아니라 학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강명구 : 당연직을 줄이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자문할 수 있는 분들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그것은 제가 전달을 하겠고 아까 추천하는 인원수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평의원 이순일 : 인원수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건축학부나 환경건설교통공학부 계신 분들을 새로 임명할 때, 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이 좋겠냐고 추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수가 안 늘어도 평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4명으로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학생회의 의견에 따라 한두 명 더 추가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장기에 걸쳐서 건축위원회를 개편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지금 얘기된 것을 고려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당장 며칠 뒤 건축위원회가 있고 진행되어야 한다면 추가적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숫자 이런 것은 지금 확답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총무처장 이준섭 : 의견 주신 것에 대한 회신을 기획처에서 했고 의장님께서 총장님과 기획처장을 뵈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총장님은 의장님께서 학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평의회가 여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의장 강명구 : 그런 기억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goal이 같다' 라는 합의가 된 것에 방점이 있어야 하는데, 방점은 사라지고 기술적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진전이 없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결론을 낼 수 없을 것 같으니 우리 의견을 정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달라고...

< 간서명란 >

 14 -

총무처장 이준섭 : 5월 31일 건축위원회가 심층적인 문제를 심의할 수 있는 상황이 시기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회의가 연기가 됩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연기는 아니더라도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걸려있어서 이것을 심의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상견례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장 강명구 : 저는 대학평의원회의 의장뿐만 아니라 대학교수회 의장을 맡아 교수 640여명의 대표입니다. 여러 교수님들께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건축 관련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뜻은 같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원칙 지켜서 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일 밖에 없습니다. 웬만하면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칸을 넓혀주시면 제 생각에는 3명 정도 하셔서 정 뭐하시다 하면 실무위원 한분 모시고 저희 교수나 학생대표를 한 두 분모시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의원 조중열 : 지금 이렇게는 시일에 밀려서 총무처장님이 제안하신 요지는 교수회에서 추천하면 두 분 정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처장님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답을 하실 상황이 아니라면 보내드리고 우리가 정해서 말씀드리는게 어떨지요.

총무처장 이준섭 : 내부에서 논의하시고 저도 한번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평의원 이재호 : 여기 위원은 아주대학교 교수 또는 구성원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외부위원...

총무처장 이준섭 : 꼭 그런 건 아니고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학교 건물을 짓는데 논의를 시키는 건데 외부인이 들어와서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평의원 이재호 : 예를 들어 동문이라면?

총무처장 이준섭 : 동문은 가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간서명란 >


의장

평의원 이순일 : 어차피 설계 심사위원을 보면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맥락이 존재합니다. 처장님께서 임의로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그건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건 평의원님들께서 기분이 상하실까봐...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은 명확하게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분명히 규정을 읽어 드렸는데, 규정에 없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총무처장 이준섭 :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이 과연 세부적인 집행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평의원 이순일 : 위원회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그것 가지고 논란 할 것은 아니고요. 아까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학교가 건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에 머물러서 비효율적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을 깎아서 상당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건축비용 때문에 거기다가 조그만 건물을 짓고 만다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비능률인지 몰라요. 그런 측면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다 똑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앞서 얘기한 그런 제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평의원님들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죠.

의장 강명구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붙임1에 기숙사 수용인원이 490명인데 학생이 438명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학생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그것은 당연히 아직 안 정했죠. 당연히 그것을 먼저 정해야 설계도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숙사를 저번에 학생 대표와 상의를 했는데 왜 국제학사냐 처음에는 외국인학사 외국인학생기숙사라고 했었다 그런데 왜 우리학생은 차별을 하느냐 해서 그래서 국제학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학생이 들어오면 한 아파트 형식으로 한 아파트 내에 4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면밀하게 시뮬레이션 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죠.

의장 강명구 : 몇 대 몇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 간사명관 >

의장

총무처장 이준섭 : 원래는 외국인 중심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총학생회와 논의 한 후 50:5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언제 논의 하셨습니까?

평의원 임정민 : 등록금심의위원회 때 논의를 했었고 그 전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기숙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있다면 50:50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기숙사 재활용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주시지 않고 50:50이 정해질 것 같고 그것은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기숙사 중에 당장 시급한 것이 남제관입니다. 남제관을 철거해야 할 시점이어서 건축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논의를 해 봐야 합니다.

의장 강명구 : 임정민의원 말씀대로면 50:50도 확정이 아니죠?

평의원 임정민 : 네, 확정이 아닙니다.

의장 강명구 : 학생회에서는 한국학생비율이 높기를 원합니까? 외국학생 비율이 높기를 원합니까?

평의원 임정민 : 신식건물에 한국학생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 그전에도 광고관과 화홍관이 지어질 때 광고관에는 여학생이 살고 화홍관에서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먼저 살게 되었습니다. 양보는 한 번 두 번이지 꾸준히 양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숙사 활용계획에 있어서 국내학생들이 차별을 받는다면 저희는 한국 학생들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지난번에 말씀 하실 때는 50:50이었는데 갑자기 외국인 학생 438명이라고 해서 저희가 혼돈하였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가고 했는데 총무처장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의견을 합의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의견인데 내부에서 논의하시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제안 드린 것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의장 강명구 : 혹시 또 질문 더 하실 분계십니까?

평의원 윤성승 : 건축위원회 상정 안건 나열된 것을 보면 내외국인 구성 비율도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논의사항에 보면 없거

< 간석명 란 >
의 장

든요? 그것은 어디서 나중에 결정하게 되나요?

총무처장 이준섭 :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는 건축위원회 소관이 전혀 아니
고요.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의견
이 집약이 되어야 설계할 수 있는 설계가 달라지거든요.

의장 강명구 : 학생 비율은 누가 결정합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학생비율은 등록금심의회 때 나온 결론을 토대로 해
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아니, 토대로가 아니라 변경을 하려면 새로운 심의를 거쳐
야겠죠.

총무처장 이준섭 : 외국인 학생 대 내국인 학생 비율을 얼마로 할지는 사실
상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획처에서 시뮬레이션 하고... 외국
인 학생이 한 학기에 몇 명이 오고 실제로 기숙사 있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모두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해요.

의장 강명구 : 그런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안하고 기획처장과 몇 사람이 앉아
서 결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평의원 이순일 : 등록금 심의회에서도 건축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분
명히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런 계획이 있
기 때문에 건축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과정
을 다 거친 지금 ‘전체 건설규모가 달라지거나 내외국인 비율이 달라질 수
도 있다’ 면 다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할 거다, 한다면 수용해
라’ 하는 입장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런 것이야 말로 대학평의회가 있는 사유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물론 세세한 것은 조금 변경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취지를 보니까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
이 확정이 안된 상태로 설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어느정도 비율을 확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누가 하는지...

의장 강명구 : 이수영 선생님, 기획처에서 대학평의회 의장 앞으로 정확하
게 공문을 보내주세요. 가칭 국제학사 할 적에 학생 비율이 내국인 대 외국

< 간서명란

의상

인이 얼마인지, 학생의 개념정의는 무엇인가 대학원생인가 학부생인가, 확정된 것이 있으면 말씀주세요. 확정된 것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주세요.

총무처장 이준섭 : 이 문제를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일 년에 들어오는 외국인 학생이 예컨대 500명이다 하면 그 중에 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오는 학생도 있고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몇 년 거주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 수를 파악해야 하고, 중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어학당에서 매 학기 몇 개월씩 들어오는 중국인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거기에 넣을 것이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50:50으로 정한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수 조사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거주하는 상태와 내국인 학생들이 거주하는 상태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2인 1실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학생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중국학생들은 2인 1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인 1실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4인 1실이 몇 개정도 들어가야 하는지를 설계에 반영해야겠죠. 지금 당장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조사 및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겁니다.

의장 강명구 : 기준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다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학생의 개념정의는 무엇이고 외국인 대 내국인 비율은 얼마고, 지금 정해진 게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얼마다,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을 꼭 정확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기존의 민자기숙사 설계를 그대로 활용하면 그 규모가 2,200명이거든요. 2,200명이라고 계획하고 있는 기숙사보다 1,400명이 늘어나는 것 아녜요?

의장 강명구 : 지금 이것은 1400명이 아니고 500명짜리인데 얘기하시면 저희가 무지 헛갈립니다.

평의원 이순일 : 대학평의원회 안건으로 국제학사 건설 계획을 올려서 저희가 심의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예산자문 때 분명히 다루지 않았었나요? 분명히 이전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죠?

의장 강명구 : 했고, 그때 50:50으로 정확하게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규모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행정부서에서 결정



하면 되는 일이다'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면 곤란합니다. 1400명 규모가 된다면 어떻게 수요 반영이 될 것인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 대학구성원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결정이 다 될 때까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 자료를 들고 왜 논의를 한 겁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형식 요건으로 한 것입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그런데 평의회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간에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 드린 내용이고,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평의회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시라는 거죠. 만약에 기존 민자기숙사(안)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가능성을 총무처원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의장 강명구 :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결정하시려면 민자기숙사(안)을 보신 분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의장 강명구 : 그것은 꼭 민자기숙사(안)이 아니더라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사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단가를 낮추고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면 믿고, 그것이 민자기숙사(안)이 아니더라도 설계(안)이 있으니까 공사비를 다운시킬 수 있겠죠. 아주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처장님 나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실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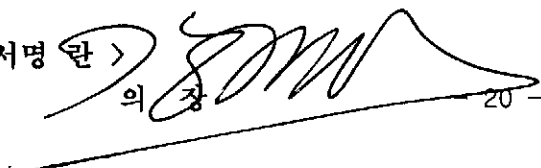
평의원 이강준 : 제가 보기에는 처장님께서서는 굉장히 일을 어렵게 풀고 계십니다. 지금 (안)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 변경(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개인적으로는 실무진이 굉장히 일을 하기 힘들게 하시는 듯 합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어떤 점에서요?

평의원 이강준 : 지금 이미 국제학사(안)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의 디자인을 활용하시겠다고 하면 실무진들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실무진에게 충분한 검토를 지시를 했어요. 현재 계획중인 국제학사는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제로 상태입니다.

평의원 임정민 : 나가시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학생대표자들이

< 간서명 환 >
의 장  20 -

전달했던 건축위원회와 건축사선정위원회에 학생대표 참가가 기획처의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배제하고 선정한 것인지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요즘 기획처에 굉장히 많은 일이 몰려있어서 이게 아마도 그 차원인 것 같아요. 등록금심의위원회 때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대표들이 주장한 것을 충분히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평의원 임정민 : 가능성 제시가 아니라 확답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제가 기획처장님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의원 이강준 : 하나 더 말씀드리면 AIMS2가 예전의 AIMS1의 소스를 많이 활용해서 제작하는 바람에 지금 AIMS2 자료를 믿지를 못해요. 통계 자료를 가져오면 지출결의서와 대조를 해봐야 할 수준이에요. Raw Data를 다 들여다봐야 전체 통계를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AIMS1의 베이스를 가져왔거든요.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짜집기해서 다시 만들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새로 구축된 것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 드리는 게 기존의 디자인을 이쪽에 계속 활용 하겠다 하시는데 기술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하는 게 낫죠. 그것을 다시 다 해체해서 부분적으로 뜯어 고친다는 것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평의원 이순일 : 부지가 달라지면 설계는 달라집니다.

평의원 이강준 : 지우고 다시 그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총무처장 이준섭 : 지금요 설계비를 상당액 들었는데 그것을 폐기하라는 것은 선뜻 수용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의원 이강준 :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실무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총무처장님 말씀은 만약에 사용 가능하다면 당연히 사용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수정하여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단계, 그래서 5월 31일 건축위원회 그때까지 검토가 다 끝나면 실질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렇다는 거죠.

< 간서명란 >


의 장 - 21 -

의장 강명구 : 지금 총무처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어요. 건축위원회, 시공사선정위원회 이런 근거도 마련해 주셨고 우려하시는 게 많지만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희가 합리적으로 참여하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고맙습니다.

(5분간 휴회 및 내부 논의 후)

의장 강명구 : 이수영 선생님, 이번 건축위원회 참여를 두 가지 옵션을 드릴 텐데 하나는 대학평의회 구성단체인 교수회, 학생회, 동문대표 각 2명씩 6명이 참여하든지 그게 싫으시면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하든지... 저쪽에서 오케이 할 경우에는 3분 추천하는 것을 어떻게...

평의원 이재호 : 직원회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장 강명구 : 글썽요.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평의원 이강준 : 직원회 관련해서 이미 실무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직원대표가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조중열 : 그런데 지금 생활관장이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생활관장이 안 들어가십니까?

평의원 윤성승 : 건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활용이 아니라... 사실은 써본 사람이 제일 의견이 있을 텐데...

평의원 이재호 :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활관장이 추가적으로 건축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발의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당연직 중에 한 사람을 생활관장으로 교체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지금 여기서 의료원 기조실장은 사실 직접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의장 강명구 : 의료원도 사실 상관있죠.

평의원 윤성승 :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평의원 이순일 : 이것은 생활관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건축위원회이니까 의대전물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 강명구 : 약대학생도 있고 의대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 간서명란 >
의장  22 -

렇게 정리합시다. 교수회, 학생회, 동문대표 각 두 명씩 하든지 대학평의원
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하든지...

평의원 윤성승 : 이번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이게 기획처 소관인데
총무처장님이 나오시니까, 지난번에는 기획처장님이 나오시고 이번엔 총무처
장님이 나오시니까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회의를 해야 하는지 약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 참석 못할 경우에는 회의를 연기해야 하나...

평의원 이순일 : 저도 동의합니다. 두 분이 다 관계 부서의 처장이신데, 평
풍 하듯 되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될까 걱정됩니다.

의장 강명구 : 저희가 날짜를 먼저 잡았고, 기획처장님 회의가 나중에 잡힌
거죠. 맞죠?

기획팀 이수영 : 처장님 회의는 한국지역대학연합 행사여서 오래 전에 잡힌
일정입니다. 평의원회 일정이 5월 안에는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일정
조율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의장 강명구 :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기획처장님과 총무처장님은 같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법정부담금 관련 재정개선계획서인데 첨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낸 공문과 저희가 재단에 보냈던 공문, 교과부에
보낸 공문, 회의록 등등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냈습니
다. 맞죠?

기획팀 이수영 : 네

의장 강명구 : 보통 답변이 언제 옵니까?

기획팀 이수영 : 그쪽 일정에 따라서 변경되어서, 답변이 정확하게 얼마 만
에 온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장 강명구 : 한 달 후에 제가 달력에 표시해놨습니다. 한 달 후에도 답변
이 안 오게 되면 직접 인터넷 민원 올리려고요. 인터넷 민원을 올리면 그것
이 국가권익위원회로 가서 자연스레 7일 내지 14일 이내에 답을 해줘야 되
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예의상 아직 올리지 않았습시다. 한 달 내에 안 오면
올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법정부담금 관련 재정개선계획서를 여러 가지
회의 결과 협의했고 일이 진행 중입니다. 일단 재단이 무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다릴 수밖에 없긴 한데...

평의원 임정민 : 상임이사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의장 강명구 : 저희가 공문을 전달했죠?

기획팀 이수영 : 네

의장 강명구 : 접수됐습니까? 접수안했죠? 그래서 저희가 내용증명을 보냈
죠?

기획팀 이수영 : 네

의장 강명구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전체
이사분들한테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교과부에 보냈던 공문을 전체 이사
분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평의원 이재호 : 그런데 12페이지 보시면 '12년 2월분부터 적용하기 때문
에 '12년 2월분 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급하여 승인
신청,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평의원 이순일 : 5페이지 추가 안내사항 나 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학교법인에서 보전할 경우...

평의원 이순일 : 결산에 가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2
억여 원 정도를 반드시 학교법인에서 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
왔나를 결산에서 꼭 봐야합니다.

의장 강명구 : 실제로는 국회에서 이 법을 1월 16일인가 통과시킨 것은 굉장
히 의미가 있는 통과입니다. 재단이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꼭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자료를 안내놓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재정개선계획서를 내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자문을 고려해야 하
나요?

평의원 이순일 : 추경은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교비부담액이 분명히 달
라지기 때문에 추경에 이게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서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학교의 답변이 과연 타당한지 달라졌다면 답변이 근거가 있는 것인
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임정민 의원께 문의
를 하고 싶습니다. 등록금 협의를 한 내용에 이 법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변경사항이 생긴 것일 텐데,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등록금 위원회를 다시 하는 기회는 없습니까? 분명히 확인이 한번 필요한

< 간서명단 >
의 장 
- 24 -

내용입니다.

의장 강명구 :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등심위는 일 년에 한번 하나요?

평의원 임정민 : 일 년에 1회 있고, 위원회를 곧장 해체하는지 아니면 일 년 동안 똑같이 하는지...

평의원 이순일 : 해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등록금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필수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심의하라는 것이니까, 그 기구는 남아있어야 정상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등심위는 상설기구이니까...

평의원 이순일 :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의 문구를 보더라도 사전심의 필수화하는 기구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등록금심의 위원회는 남아있어야 됩니다. 등록금 심의를 했을 때와 학교 재정계획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심지어 중간 중간 진도율 체크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책무성 확보 유도라고 한 것은 요번만이 아니고 앞으로 매년 학교부담 부분에는 교육부에 올리기 전에 이사회도 거치고 대학평의원회도 거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해가지고 올리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평의원 이순일 : 근데 이게 2012학년도에 적용인데, 아까 2012년 2월부터 적용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2011년 회계연도 2월까지 소급적용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그건 그런데요. 여기 자율적인 책무성 확보 유도에 들어있는 항목을 보니까 장기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장기적인 유도방안인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래부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상설에 해당하는데 다만 회의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집중해서 등록금 몇% 인상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열었을 뿐이지요.

평의원 이순일 : 위의 적용 시기를 보시면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이라고 못박혀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등심위도 상황이 변했으면 다시 열 수 있는 것이네요.

< 간서명란 >  원 장 - 25 -

평의원 임정민 : 충분히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평의원 윤성승 : 이 법은 다른 법에 비해서 시행시기를 굉장히 특이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바로 시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하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정치적인 이유겠죠.

의장 강명구 :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공문 보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다음 1차 추경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7월 되면 방학 시작되고 하는데 6월 중에 정하면 어떨까요?

평의원 이순일 : 지난번에 드린 의견 중 하나가 이제는 예·결산자문 날짜를 못 박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번만이 아니라 아예 날짜를 다 지정해서 관례화 해주시면 스케줄 잡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보통 3차 추경까지 가죠? 3차 추경은 될 수 있으면 늦으면 괜찮고요. 1차, 2차, 3차 추경의 날짜를 미리 셋업 해주십시오.

평의원 이순일 : 특히 2차 추경 자문은 날짜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등록금 심의할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지, 아니면 나중에 볼 때 너무 편차가 커서 문제입니다.

의장 강명구 : 더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팀 이수영 : 추경 예산 자문을 위한 다음 평의원회를 6월 29일로 하실 수 있으신지요?

의장 강명구 : 예산, 1차, 2차, 3차, 결산, 이 다섯 번은 날짜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것에 맞춰서 등심위도 같이 맞추고 여러 가지 등...

평의원 이순일 : 그래야 저희도 자료를 여유 있게 받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것으로 37차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일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서명란 >

의장

26 -

2012년 5월 25일

의 장	강명구	(서명)
부의장	조중열	(서명)
평의원	윤성승	(서명)
평의원	이순일	(서명)
평의원	이재호	(서명)
평의원	이강준	(서명)
평의원	이효철	(서명)
평의원	이홍평	(서명)
평의원	임정민	(서명)
평의원	강희진	(서명)
평의원	김진우	(서명)
평의원	박윤규	(서명)
평의원	윤갑희	(서명)
기 록	김승권	(서명)

